





#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 선물안고 떳떳이 들어서리

단천지구 광업총국 아래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창건 7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단천지구 광업총국에서는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여러  
생산공정들을 개선하거나 새로 일떠세우는 벅찬 투쟁  
을 벌리고 있다. 영광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 선물

을 암고 떳떳이 들어서려는 총국인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의 투쟁기세는 충원하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판절하자,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암고 방대한 여러 대상건설을 마감단계에서

검덕 광업련합  
기업소에서 유색  
금속 광물 생산을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제 3 선광장  
파쇄장개건공사가 힘 있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 개掘되는 파쇄장은 심부에서  
개면 광석이 조래, 중쇄  
공정을 거쳐 직접 세세공정을  
거칠수 있게 설계되었다. 훈전에는  
중쇄, 사별공정을 거치는  
과정에 굵은 광석은 다시 뇌를  
이하여 파쇄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이계통이 필요없게 되었다. 사별공정이 없이  
중쇄공정을 거친 광석을 세  
쇄하여 광장 광광공정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과 설비대수가 대폭 절반으로 줄어들고 경력은 순시로 수  
천KW나 절약하였다.

하기에 생산정상화의 틀파구하고  
할수 있는 제 3 선광장 파  
쇄장개건공사에 온 힘합기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떨쳐나 해  
발고는 산정에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성과  
경조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암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제 3 선광장 파쇄장개건공사는  
1 2 대의 종전파쇄기를 모두  
들어내고 수천m<sup>3</sup>의 풍크리트

## 어머니당에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검덕 광업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기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공정설계에 맞게 건물들을 개건  
하고 국산화된 새로운 세세형 파  
쇄기를 설치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현 할기소에서 제 3 선광장  
파쇄장개건공사를 벌리기로 결  
심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그것도 당창건기념일까지!

방대한 공사량에 비해 4개  
월이라는 기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러나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파쇄장개건공  
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생산장  
화의 동음을 높여 올리겠다는 것  
을 앞당겨 불리는 심장으로 명  
세다졌다.

그 어떤 조건이 충분히 갖추  
어져 있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오늘은 원수님께서 검덕  
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  
각하니 아무리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해도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이곳으로 달려온 현 할기소  
현대화 툴격대, 리수부, 차광수  
청년들격대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제일 어려운 전투의 하나가  
기초까기였다. 아무리 함마를

파쇄기기에 들이 압을

한데의 파쇄기가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전투에 진입하였다.

물론 주민들까지 산악장이 평처  
나 텁구동원한 내부에 비로 광부  
분장과의 로동계급이 부족한 생  
산보장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리였다.

한몸이 부서져도 당앞에 다진  
힘들지 않았는가 묻는 우리  
의 물줄기로 청년들격대원들이  
현우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검덕  
의 분출로 하여 파쇄장기초공사  
와 건설공사를 위하여 저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던 광정의 사소한  
불합리한 점도 새로운 눈으로 판  
찰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당중앙뜨락에 혼백을 입고 사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위훈파  
장을 상장하고 있는 검덕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고결한 충정을 지니고  
일당당 앞에 하겠다고 결의해나  
선 것은 무조건 제기일에 해내고  
야마는 것이 바로 검터로동계급  
의 정신력이다.

작업량은 참으로 방대하였  
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새

다그치고 있는 단천지구 광업총국 아래 광산, 공장, 기업  
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소식을 전한다.

글 본사기자 리철목

사진 본사기자 정경철

신광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만이 아  
니었다.

검터에 살고 있

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파쇄

장개건공사에 아낌없는 구슬땀

을 털었다.

공장을 혼신하기 위해 편합기  
업소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지혜  
를 학습한 결과 철근조립기까지  
3.5m짜리 휠들을 제작하

여 공정기일을 앞당길 혁신적인  
공법이 창안되었다. 일체식 휠을  
조립방법이 도입된 결과 한데의  
파쇄기기초를 치는데 18시간  
걸리던 것이 10시간으로 앞당

겼다.

청년들격대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에 진입하였다.

하루 잠시간은 불과 2시간,

그러나 이들은 지시줄 모는

정열을 안고 기초까기 전투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

는 위험을 떠쳤다.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광동생산의 안전성을 보장  
하겠다는 기를 놓지 않고 생  
각하니 아무리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해도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일군들로부터 나온 기록은  
현대화 툴격대, 리수부, 차광수  
청년들격대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동원된 청  
년들격대원들과 설비직장, 제 3

기초까기 전투를 치렀다.

지난 시기 광석이 떨어지면 높  
낮이 차운 문제에 벨트가 결디지  
못하고 인차 웃쓰개 되곤 하면 현  
상을 꼬집어 앉았다고 생각하  
는 점을 살펴보면 광동연대의 세  
쇄체적지혜를 합쳐 벨트콘베  
이의 각도를 세롭게 변경함으로  
써 생산의 안전성을 믿음직하게  
답보하여 힘들 줄 알았습니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격대원들의  
심정이 아닌 걸터로동계급  
의 심장을 모소리였다.

현대화 툴격대원들이 일정계획  
을 높이 세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초까기 전투가 끝나고 풍크리

트리치기에 돌입했을 때였다.

파쇄장개건공사에 힘들 줄 알았

습니다.』

시  
초

## 피 는

피맺힌 신천의 하늘아래선  
손에 훈 이 봇데도  
분노에 떠는 총창이 되누나  
서슬푸른 장검이 되누나  
  
증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시여  
하늘땅에 새기는 저주가 되라

원쑤들의 가슴팍을 짜르는 비수가 되라  
미제의 정수리에 피붓는 폭탄이 되라  
  
오,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  
이 강토에 뿌려는  
피의 성토다  
복수의 격투이다

## 우리는 신천박물관을 새로 세웠다

신천  
추여조자 피로운  
너는 이 땅의 아픔!  
너는 이 나라의 상처!

그 아름 그 삼처들을  
쓰러린 가슴에 그려안아  
우리는 여기에 박물관을  
더 크게 더 높이 새로 세웠다  
이 땅에 세워야 할  
그 많은 창조물들앞에...

한살 또 한살  
미제의 가슴팍에 총창을 막는 심정으로  
원천의 피가 스민 블은 땅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운 우리  
그우에 지붕이 아니라  
원쑤에게 벼락을 칠  
복수의 하늘을 없었다

강산은  
열매번 벙한다 하라  
흐르는 세월속에  
모든것이 잊혀진다 하라

허나  
변할수 없는 미제아주의 본성

## 신천의 문주

김 남 호

박물관앞에 나란히 솟은  
사백어민이요  
백들어민이요  
복수자들을 끌없이 맞아주는  
신천땅의 문주란가

엄마를 불러 찾던  
아이들의 애절한 피울음소리  
피덩이들을 찾으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들의 사무천 푸성  
지금도 바람결에 실려  
비틀을 감도는 여기

갈라져 살수 없는 엄마와 아이들이  
살인귀들의 손에 참혹하게 갈라져  
눈도 못 감고 물려버린 피맺힌 그 원한

아, 억 한 마음아 달랠길 없구나  
어데 가나  
행복의 대문이 반기는 이 땅에서  
원한으로 쌓아올린  
문주 아닌 이 문주로 들어서야 하는  
나의 마음아

기습이 찢겨지고  
이름에 이름이 데 쌓일지도라도  
이 피의 물주로 내 들어서리  
여기 풀에 돌아간다면  
우리를 향해 열리면 행복의 문들에  
불행의 빛장이 다시 질리고  
노예의 죄사슬은 온몸을 휘감으리

## 피 의

잊혀질수 없는 신천의 살륙만행  
후대들의 눈동자에 더 또렷이 새겨주기  
위하여  
억년 드높지 않은  
계급의 반석우에 빛들어세운  
피빛은 이 집!

우리는 새로 세웠다  
행복이 커갈수록  
신천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되기에  
하늘아래 미제의 죄종자가 남아있는 한  
끌까지 결산해 죄악의 역사  
세월의 막강속에 물어버릴수 없기에

한집 또 한집  
피젖은 유물들을  
해혹한처럼 가득 채워넣은  
신천박물관, 너는  
반드시 미제와 결판낼 계급의 절지  
무자비한 복수심의 발원점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제와  
어제도 쌔웠고  
오늘도 쌔우며  
결단코 기어이 꼴장을 보고야말 새 세대들이  
이 땅에 더 크게 더 높이 세웠다  
오, 복수의 최악고를!

죽은 사람들이  
신 사람들에게 말을 할수 있는가  
겁을 걸을  
우리에게 웨치며 가르치며  
피의 강의를 하고있는 신천의 명흔들

한자육 절으면  
둘도 안된 어린 동생을 업은 채  
생애 당장한 소녀의 피울음소리  
-이 원주를 갚아주세요...

또 한자육 옮기면  
도끼날에 맞아 죽고 걸이대에 찔려 죽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의 절규  
불에 타 숨들이 된 그들의 부르짖음

기습이 아파서 더 걷지 못하겠구나  
심장이 터져와 더 들지 못하겠구나  
허나 뼈와 살에 새기며  
끌까지 끌어야 할  
신천의 절규

돌처럼 굳어진 침묵이

## 여기서 미국을 보라

박 정 철

엄마의 짓풀을 찾아  
콩크리트벽을 허비면 백들어린이  
그 여린 고사리손들이  
승냥이의 면사포를 벗기고 있다

순박한 농민의 머리에 박혔던  
피문은 저 대못이  
지구상에 부식된 숨미 공미를

썩은 장작개비마냥  
썩- 빠개고 있다

대양전녀 아메리카땅

『자유의 너신상』이에서 미국을 찾지 말라  
살목의 피바다우에서 너털웃음치는

진짜 미국이  
바로 여기 조선의 신천에 있다

만복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여  
여기 풀 거쳐서 가라  
이 하늘아래 흘러가는 번영의 세월이여  
신천에 새겨진 피의 52일을  
영원히 안고 흐르고 흐르라

세세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여기 풀 찾는  
복수자들의 대오 끝기지 않으리니  
우리가 나서야 할  
판가리결전장앞에  
신천의 봉분은 피의 문주로 솟아있어라

## 교 정

최 광 일

수천마디 웨침을 대신하는 여기  
가슴을 짓누르는 숨막히는 공기가  
심장의 피를 펄펄 끌게 하는 신천박물관

야수 미제를 어떻게 죽탕쳐야 하는기를  
원한과 분노로 가르치며  
너는 복수자들을 키워내는  
만미의 교정

제 금교양대학!

여기서 교과서를 따로 찾지 말라  
흙 한줌 돌 하나  
한포기 풀 한그루 나루도  
제주와 분노의 원혼이 되여  
피의 진리를 웨치나니  
-원주에 대한 헐값만 한 환상도 죽음이다!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라!

모든 교정에는 종임이 있어도  
여기선 누구도 졸업이 있을수 없거니  
마지막학관거리진산의 날까지  
이 피의 교정에서

살아있는 혼흔들의 강의는 계속되리라

이 시각도  
세상을 제 집 마당처럼 싸들이다  
니며  
『평화』와『인권』을 떠드는 미국  
괴물은 총구를 휘둘러대면서도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는  
그것은 분칠한 미제의 허상일뿐이다

보라  
저 냐나무를 화약창고와  
생매장터에서  
방공호와 저수지들에서  
피질갑을 한 미국의 낯짝을  
미국 너는  
인간의 피를 마셔야만 생존하는  
흉혈귀!

## 피 는 피로 써 !

도살자!

식인종!  
미국이 어떤 인두겁을 쓴 야수인지  
제일 똑똑히  
제일 날달이 볼수 있는 곳  
다시는 이 행성에  
또 다른 신천이 없게 하기 위하여  
미국을 발가놓는 피의 고발장

이제 세계는 보게 되리라  
미제아란들에 의해 무장한 죽음을 당한  
세계의 수천수만사람들의 원한을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풀어주는가를  
복수의 의지를 칼날처럼 베린 강자들의  
손에  
미제의 숨통이 어떻게 끊어져나가는가를

정녕 그날이 온다면 자비를 모르리라  
증으로 서슬푸른 병사의 총대  
총창마다 원주를 무찌르고  
총구마다 정벌의 불을지게 냄  
결산하리라 미제에

오, 피는 피로써!

살아 뛰는 더운 피가  
새 생명을 낳는다지만  
원한서린 이 땅에선  
무고하게 죽은이들의 피가  
총잡은 복수자들을 자해우고있거나  
미국의 강줄기마다  
네놈들의 피가 사풀치게 하리라  
백악관과 펜타곤...  
벽은 벽마다 검붉은 피가 뿌리지고  
죄악의 무리들이 주점으로 나딩굴게 하

리라  
거인처럼 자라난  
복수자들의 총대로  
병사는 쓰리라  
천백배의 무자비한 복수사  
이미리카의 영원한 멸망시를  
신천을 암고 사는 복수자들에게  
침발련 사죄도 억발련 항복서도  
필요치 않다  
죄많은 침략자-미제의 명줄을  
서리발총창으로 영영 끊어먼지리라  
오, 피는 피로써!

이 땅에 사무친 원한을 날긴 미제  
너희들의 땅이 대양건너 있다고  
병사의 용구에서도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말라

제양전녀 아메리카땅  
『자유의 너신상』이에서 미국을 찾지 말라  
살목의 피바다우에서 너털웃음치는  
진짜 미국이  
바로 여기 조선의 신천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험난한 미제에  
짜고들고 철근기공을 믿음직하  
게 앞세워나갔다.

모든 직장들은 험난한 미제에  
짜고들고 철근기공을 믿음직하  
게 앞세워나갔다.  
이번 일념을 안고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당 조직의 지도밑에 백두의 혁  
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으로  
증양도물원개간공사를 제기일에  
풀내자고 실천행동으로 제때에  
포장지배인은 끝길만은 막지 못하  
여 하면 사업소에서 대상건설의 첫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켰다.

기사장, 월, 시공장,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기동적인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업소일 군人们的  
철학적이며 단지투지하는 직장들은  
서 세리세로운 성과들을 낫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즐기자며 벌

리였다. 한편 시공장과 최명  
일동무들은 직장별로 말아해야  
할 기동대수와 모양, 필요한 휘  
파, 철근, 물재와 세 멘트의  
방, 하루파제와 질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둘 공정계  
획을 짐작으로 토의하여 기술  
지도를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성과가 소중



# 북남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위한 우리의 주통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북과 남은 온 겨레의 기대와 넘원에 맞게 화해의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북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다. 외세가 강요한 인위적인 분별로 우리 민족은 수십년 세월 형식적인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외신들까지도 평한바와 같이 최근 북남사이에 조성되었던 위기일발의 초기장상태의 밀비터는 민족의 불멸이라는 근본문제가 깔려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별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교정진전까지 치달아온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거의 평화를 빙영하여 위기를 가시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연한 의지와 원칙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번 사태는 불피코 전면전쟁으로 번져겠을 것이다.

북파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 톡털 활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그로 막는 확근을 뿐만 아니라 한다.

북파 남은 공통보도문을 통해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체해 나가며 어떤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던 일이다.

아당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군사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의 힘을 높이 평가한다.

참여현대와 대북협력, 민간교류활성화를 윤운하면서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조선군부당국은 북의 회공작전」이니 「소령무인기도 밤」이니 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분주장을 꾀하고 있다.

『국회의 회』라는 국회의 해개별파 각종 도발이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니, 「적재적인 북을 두고 평화와 번영을 기대 할수 있다.」는 대결폭탄까지 늘어놓았다. 민일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임해두는 경우 화해의 귀인한 징을 맞게 될것이며 북남관계는 대결에로 되돌아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팽할수 없는 사례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은 자들의 처사가 북남 합의를 짓밟는 배신행위라는 것을 명심해 하여 하며 현정세가 뒤집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어느 때가도 이토록수 없다.

70년간에 걸친 민족분별의 역사는 북과 남이 대결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 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 번영을 이루려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우리 겨레가 날로 우상해지고 있는 외세의 횡포한 전횡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기 운명을 지키자고 해도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 지금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

고 할수 있다. 공통보도문에 발표된 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매우 상서롭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당국이 대화체계 구축과 북남협력, 민간교류활성화를 윤운하면서도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어느 일방의 리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모두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민족의 통일 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큰 리익을 보지 못하고 험하게 자기 주장과 이해관계에 매달린다면 불신과 대결의 짓만 깊어질뿐 화합과 단결은 어느 때가도 이토록수 없다.

70년간에 걸친 민족분별의 역사는 북과 남이 대결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 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 번영을 이루려면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우리 겨레가 날로 우상해지고 있는 외세의 횡포한 전횡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기 운명을 지키자고 해도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온당을 꾸려놓은 경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하는 구체의 연한 자세에서 벗어날 때는 왔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에 의해 탈려왔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조건으로

지 못한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질하면서 외세와 함께 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무슨 「통일외교」라는 것을 윤운하며 저들의 불순한 「제제통일」정책에 대한 외세의 지지와 협조를 구걸하는 맘동까지 일삼고 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는 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군사적 대결방을 부리었다.

그뿐이 아니라 남조선군부당국은 북의 회공작전」이니 「소령무인기도 밤」이니 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분주장을 꾀하고 있다.

『국회의 회』라는 국회의 해개별파 각종 도발이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니, 「적재적인 북을 두고 평화와 번영을 기대 할수 있다.」는 대결폭탄까지 늘어놓았다. 민일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임해두는 경우 화해의 귀인한 징을 맞게 될것이며 북남관계는 대결에로 되돌아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팽할수 없는 사례이다.

남조선당국은 자들의 처사가 북남 합의를 짓밟는 배신행위라는 것을 명심해 하여 하며 현정세가 뒤집을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어느 때가도 이토록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징을 맞게 될것이며 북남관계는 대결에로 되돌아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팽할수 없는 사례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회공작전」을 성립시킨 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폐하려면 군국주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지배주의적 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례법, 주변사례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현역법 등 10개 법률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과 「자위대법」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어있는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대한 위협으로 일본과 아시아 및 세계를 위협하는 미군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일본파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라비아반도에 대한 침략의 징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의이다.